

■ '김덕령 평전' 낸 북구청 총무과 김영헌씨

“우리고장 의병장 기록 복원 뿌듯”

‘광주’의 대표적인 지명 중 하나 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총장로’다. 길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 광주 출신 의병장인 김덕령(金德齡·1567~1596) 장군의 시호 총장공(忠壯公)에서 딴 것. 총장로 외에도 광주에는 ‘총장’이란 단어를 쓰

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가장 어려운 점이였다”며 “임진왜란의 마지막 의병장으로 용맹을 떨치던 이 지역 장군임에도 변변한 평전 하나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김씨가 김덕령 장군의 일생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난 2003년 북구청 사업으로 ‘전설로 되살아난 민중의 영웅 김덕령’을 출간하면서부터다. 김씨는 “장군을 알면 알수록 그의 억울한 죽음이 나를 짓눌렀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참고문헌만 100권 넘어

책은 김 장군이 비운의 죽음을 맞이 했던 원인과 영향, 성장과정과 주변 환경, 의병장이 되는 과정, 의병 활동, 이동화의 난과 역할을 한 죽음, 신원(申冤)과 현창(顯彰) 등 6부로 나뉘어 있다. 책 곳곳에



‘김덕령 평전’의 저자 김영헌씨가 광주시 남구 사동 사직공원 내 김덕령 장군의 시(春山)곡·春山(山)가 적힌 시비 앞에 앉아 있다. 시비는 광주시가 지난 1974년 세운 것이다. (사진=김영헌씨 제공)

는 김씨의 답사 현장과 문서 등을 찍은 사진 자료 140여컷이 실려 있다. 책의 뒷부분에 적힌 100권이 넘는 참고문헌 목록은 김씨의 노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김씨는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김덕령 장군의 전설과 야사를 집

대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 업무를 못내고 있다”며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일들이 자주 이뤄지면 저절로 광주가 의향이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5년간 자료 수집·답사

는 곳이 꽤 되지만 김덕령 장군의 일생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김덕령 장군 410주기(15일)를 앞두고 현지 공무원이 ‘김덕령 평전’(황지사 펴냄)을 발간해 주목 받고 있다. 주인공은 광주시 북구청 총무과 김영헌(46·6급)씨. 김씨는 책을 위해 5년 동안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고스란히 자료 수집과 현장 답사 등에 매달려야 했다. 김씨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 상 토요일 근무도 많았기 때

토고 축구대표팀 감독 결국 사임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했던 토고 축구대표팀의 오토 피스터(69) 감독이 결국 사임했다. 네덜란드 신문 ‘텔레흐라프’는 11일(이하 한국시간) 독일월드컵 개막 직후 토고 대표팀 소속을 이탈했다 돌아오는 해프닝을 일으켰던 독일 출신의 피스터 감독이 오는 2008년까지 맺은 토고 축구협회와의 감독직 계약을 ‘없던 일’로 했다고 보도했다.

‘백발의 광인’이라는 별명이 있는 피스터 감독은 수단 클럽팀 알 메리카의 지휘봉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피스터 감독은 지난 6월10일 월드컵 개막 직후 토고 선수단과 출전 보너스 문제로 갈등을 빚어 캄프를 떠났다가 한국과 조별리그 직전 다시 돌아오는 꺾꽂이를 펼쳤다.

통가국왕 서거... 41년 통치 막내려



지난 41년간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국왕을 통치해 온 타우과 아하우 투푸 4세 국왕이 뉴질랜드 병원에서 서거했다고 현지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향년 88세. 세계 최장수 국왕 가운데 한 사람인 투푸 국왕은 최근 수개월간 알려지지 않은 병으로 뉴질랜드 병원에 입원해왔다.

뉴질랜드와 통가 현지 언론들은 투푸 국왕이 현지시간 10일 자정 직전 서거했다고 전하고 통가 정부당국이 곧 그의 서거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845년 폴리네시아 군도의 170여개 섬이 통합해 이룩된 통가국왕은 그동안 준분간적으로 나라를 통치해온 투푸 국왕이 타계함에 따라 민주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황혼 이혼’

위자료 53억 지급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호(79) 동아제약 회장과 부인 박모(78)씨의 이혼소송이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강 회장과 부인 박씨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이혼 조정안을 받아들여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박씨는 앞서 지난해 8월과 11월 강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의 이혼 조정안은 강 회장이 박씨에게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약 53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당시 이를 통해 개인 자산 3.7%를 포함해 동아제약 지분을 5.59%까지 끌어올렸다. 현재 강 회장 개인의 지분은 5.20%이다. /연말뉴스

‘F1(자동차경주) 황제’ 슈마허 내달 은퇴



자동차 경주 포뮬러원(F1)의 슈퍼스타 미하엘 슈마허(37·독일)가 이번 시즌 후 은퇴를 선언했다. 슈마허의 소속팀 페라리는 11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이탈리아 그랑프리 시리즈를 마친 뒤 “올 시즌 마지막 레이싱인 10월22일 브라질 경주를 마친 뒤 은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슈마허는 F1에서 7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선수로 슈마허의 뒤로는 5회 우승의 후안 파블로 판지오가 있을 뿐이다. 1994년 첫 우승을 차지했던 슈마허는 이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연속 F1 무대를 석권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다.

슈마허는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렵다”고 은퇴의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그간 은퇴하면 당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영원한 페라리의 가족이다”라며 말했다고 페라리 측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슈마허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원망 잊은지 오래... 부모 꼭 찾으래요”

6개월만에 광주 영아보호소서 스웨덴 입양 이화숙씨

“꼭 만나보고 싶어요.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겁니다.” 생후 6개월(사진) 만에 스웨덴으로 입양돼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이화숙(35·Marie Holm)씨. 비록 서툰 영어였지만 친부모를 향한 그리움을 절절히 토해냈다.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인입양인대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적 있는 이 씨가 다시 한국을 찾은 것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다. 여름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자는 이 씨의 제안에 남편(Peter Holm·44)도 흔쾌히 승낙했다. 아내의 간절한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올 때마다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예요. 첫 번째 방문에는 혼자 왔



있는데 이번엔 남편과 함께 와서 더 든든합니다.” 1971년 6월 1일 광주 영아일시 보호소에서 발견된 이 씨는 정확한 출생 시간이나 장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화숙이라는 이름도 보호소에서 지어준 이름이다. 이번에도 서울과 광주 등을 오가며 자신의 기록을 살펴봤지만 수확은 없었다. 이 씨는 언젠가 부모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준비해왔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역경 김광현 ▲담양군 양종연 ▲영암군 김보환 ▲전성래 ▲함평군 김정선 ▲공로연수 박래준

인사

전남도

- ◇지방행정사무관 ▲행정혁신국 방길현 ▲강석원 ▲곽정용 ▲기업도시기획단 박병엽 ▲안병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덕부 ▲광양시 김태식 ▲지방공무원교육원 김삼규
- ◇지방농업사무관 ▲농정국 장일환 ▲최향철 ▲광양시 고윤
- ◇지방정기사무관 ▲경제과학국 문순한 ▲장봉철
- ◇지방기계사무관 ▲경제과학국 김영호 ▲김태형
- ◇지방수사사무관 ▲해양수산환경국 최갑준 ▲해양바이오연구원 송원석 ▲김경철 ▲영광군 황동성
- ◇지방수의사무관 ▲축산기술연구소 권두석 ▲지방수사사무관 ▲진도군 윤한중
- ◇지방방역사무관 ▲북지여성국 강영규
- ◇지방수산연구관 ▲해양수산환경국 조영현 ▲해양바이오연구원 박준택
- ◇지방통신사무관 ▲건설재난관리국 김덕호
- ◇지방농업연구관 ▲농업기술원 신혜룡 ▲서귀포 ▲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원 김중국
- ◇지방생활지도관 ▲농업기술원 박혜량
- ◇지방학예연구관 ▲영산호농업박물관 운영국
- ◇행정5급 승진교육 임교대장 ▲공보관실 김희철 ▲기업통상과 박종렬 ▲행정지원과 김운영 ▲최형렬 ▲해양항만과 최병만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박찬중(영암군 사회복지과장) 씨 장남 정섭은 강강만씨 장녀 성은양=17일(일) 낮 12시20분 광주 예술의전당 3층 아이리시홀. 피로연 15일(금) 영암읍 동락식당. ▲김기수씨 장남 성우군 박영근(영암 동아전기 대표)씨 차녀 성애양=23일(토)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하일곡동 동방웨딩문화원. 피로연 15일(금) 영암읍 영빈관.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제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김동욱씨 차남 정몽(공군 전투비행단 대위)군 김애자씨 장녀 지은(여도초 교사)양=23일(토) 오후 2시 광주시 탐라하우스(옛 탐페일 프라자).

시각장애인 점자 정보 단말기 보급=오는 20일까지 접수. 문의 광주시 시각장애인협회 672-9535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12일(화) 오후 6시30분 연마당 부패.512-7181 ▲북성중 제 13회 동창회(회장 박종우) 월례회=13일(수) 오후 7시 일억초. 223-7898 ▲북성중 제 14회 동창회(회장 송윤근) 월례회=14일(목) 오후 6시30분 미연회타운.226-4743 ▲조대부고 제 31회 동창회(회장 정병래) 모임=14일(목) 오후 7시 중앙자구 보성녹계. 653-9993 ▲북성중 제 15회 동창회(회장 정본진) 월례회=15일(금) 오후 6시30분 광양갑비.226-8080 ▲효동 32회 월례회=16일(토)

중친회

▲전주리씨 대동중앙원 광주전남도지원 이화희(회장 리수복) 월례회=12일(화) 오후 6시 광주전남도지원 회의실. 225-5631 ▲의성김씨 광주전남 청년회(회장 김만상) 모임=12일(화) 오후 7시 계림동 미연회타운. 226-4743 ▲영광김씨 광주중친회(회장 김인규) 모임=14일(목) 오후 7시 백운산회관. 222-4567 ▲동래정씨 광주·전남 중친회(회장 정한영) 임원회의=14일(목) 오전 11시 조선의 땅. 362-7092

향우회

▲장흥군 향우회(회장 안태경) 월례회=13일(수) 오후 7시 탐라하우스.011-609-6975 ▲동신고 제7회(회장 박종택)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16일(토) 오후 6시30분 광주 프라다 호텔 연회장. 011-633-2712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호진) 대표: (062) 515-4488

모집

▲광주민속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9월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판소리·민요·시나위·산조농악 등 국악강좌 운영. 수강료 무료(교재비 1만원). 13일까지 접수. 521-9041 ▲장애인 차량봉사=장애인 차량봉사 동행 서비스, 장거리 광주일원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님길모 특별분양 (062) 521-1100

부음

▲추광선씨 별세 덕호(개인사업)·덕담(전국인론노조 EBS 지부 위원장)·금자(재미)·영례(대전 유천초교 교사)·영희씨 부친상 이선

장미, 들, 뽕나무, 피마자, 일본 행사전문업체 고급오리엔탈 명품세탁업 전문업체